

박찬일의 '밥먹고 합시다'



피골과 목은지

굴이 이제 맛이 들었다. 굴은 남해 기준으로 보통 10월 중순에 판매가 시작되지만, 날이 추워져야 맛이 오른다. 12월 초순만 해도 수온이 보통 10도 안팎에 불과하기에, 품질이 올라가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바닷물 수온은 육상 기준보다 늦게 떨어지므로, 맹추위가 와야 진짜 굴 철이라고 볼 수 있겠다.

올해 굴은 대체로 상황이 좋지 않다. 비가 많이 오면 염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수온도 늦게 떨어졌다고 한다. 게다가 노로 바이러스 뉴스가 나오면서 굴 양식을 하는 어민들이 화가 많이 났다.

굴은 해안을 낀 곳이라면 거의 전국에서 나오지만, 서해안은 생산성이 낮은 편이다. 조수간만 차가 커서 굴이 자란다. 그 덕에 독특한 맛을 내기도 하지만, 남해에 비해 노동력이 많이 든다. 기계화도 어렵다. 투석식이라고 하여, 갯벌에 돌을 두고 거기에 굴을 붙이거나 이미 붙어서 자라는 굴을 따기 때문이다. 맛은 함초롭하니 깊다고 한다.

기호의 차이일 수 있는데 이런 굴도 맛있고, 남해 통영이나 거제쪽에서 주로 하는 수해식도 좋다. 통영에서 고흥 방향으로 가면 점차 조수간만에 따라 노출되는 갯벌을 가진 지형이 도드라지기 시작한다. 이곳은 서해와 남해의 동쪽과는 또 다른 굴이 난다. 알은 서해안보다 굵고 통영 쪽보다는 작다. 통영 쪽의 굴이 '우유' 같은 유제품처럼 풍만한 맛을 낸다면, 이곳은 차지고 진하다.

매년 이 무렵이면 고흥 바다로 후배들과 재료 탐구 여행을 간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여의치 않아서, 시간을 더 미루지 않고 11월말에 일찌감치 다녀왔다. 거래처인 모 업체를 갔더니 사장님이 울상이다. 역시나 굴이 별로란다. '쪽정이'가 많다는 것이다. 패각 안에 굴이 안 들었다는 뜻이다. 이 업체는 2년생 이상 굴을 크게 길러서 진하면서도 풍부한 맛을 내기 때문에, 특별한 거래처로 서울 요리사들에게 각광을 받는 곳이다.

그래도 고흥의 맛인 피골 맛은 보고 가져고 했다. 피골을 상시로 파는 집은 점점 드물어진다. 미리 전화해서 예약해야 한다. 온갖 굴 요리가 다 있는 대형 소비자인 서울에서, 화려하게도 피골을 파는 집은 없는 듯하다. 굴을 잘 씻어서 껍질째 삶아서 알을 추려 두고, 그 삶은 물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맑게 걸러야 한다. 손이 많이 가는데, 굴이 워낙 싸다 보니 값을 못받아서일까, 파는 집을 찾기 어렵다. 고흥에서조차 드물어졌으니,

뿐만 젓빛보다는 조금 더 맑은, 두어 번 행군 쌀뜨물처럼 반투명한 굴물이 마음에 든다. 굴 삶은 물은 결코 하얀색이 아니다. 나는 그걸 청자색이라고 생각한다. 흥미롭게도 요 근동은 도자기의 고장이기도 하다. 푸른 듯, 맑은 구름색을 띤 피골 굴물을 마셨다. 이 음식은 손가락으로 떠먹는 음식이 아니다. 노동 후 음식처럼, 쪽 들이켜는 음식 같다. 건더기를 먹고, 농주도 한 잔 마시고.

고흥은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먼 곳이다. 여수·목포·부산·울산도 다 먼 땅이지만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훨씬 가까워졌다. 고흥은 그야말로 반도의 발치다. 여수와 다리로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접근 옵션이 생겼으나 여전히 멀길 멀다. 하지만 그것이 주는 장점도 많다. 조용하고 포근하다. 인심이 요란하지 않으면서 깊다.

저녁을 먹고 시내를 걷다가 출출해서 한 중국집에 들렀다. 모든 재료가 국산. 게다가 김치를 주는데, 이게 목은지다. 남쪽은 김장이 늦어서 아직 목은지를 낸다고 한다. 중국집에서 목은지라니, 이런 황제가 어디 있냐고 일행들이 반겼다.

짬뽕도 옛날식으로 구수하다. 고기를 넣어 볶은 것이다. 60-70년대까지 널리 쓰이다가 해산물 짬뽕이 대세가 되면서 거의 사라진 조리법이다. 돼지 안심이나 등심을 얇게 저며 채소와 볶는 것인데, 그 깊이는 아주 오래된 중국 요리를 만나는 것 같다. 목포의 중국집에서 흔한 단무지와 양파 말고도 두 가지 김치를 주는 것을 보고는 놀라워했는데, 고흥에서 목은지라니.

멀고 떨어져 가치가 지켜진달까, 세상은 한쪽으로 기울어 것만은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반짝 드는 남도 여행이었다. 그 내년에는 우리를 고평하는 복잡한 당면 문제를, 이틀테면 균형 발전이나 노령화로 소멸 위기를 맞은 지역의 암울한 미래가 있었지만... 씩씩한 마음을 추스르며, 새 봄을 기다린다. 아아, 이 겨울은 참 길어질 것 같다. <음식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김순식  
광주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전남의대 예방의학교수

정부는 지난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 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 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2025년까지 20개 지방 의료원 400병상 규모로 확대,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 병상 5000개 확충, 지방의료원 신축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 시군구의 지방 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 보조율 60%로 인상, 그리고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해 국립대 병원과 지방 의료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이다. 전대미문의 감염병 대응을 겪으면서도 2021년 정부 예산에 공공병원 신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정부가 뒤늦게나마 공공의료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은 여전히 기대했던 수준보다 크게 미흡하다. 이에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추가로 논해 보고자 한다.

첫째, 사상 유례없는 슈퍼 예산이라고 불린 2021년 정부 예산에 공공병원 신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고, 2022년에도 신축 대상 지역 세 곳(서부산·대전·진주)에 대한 설계비만을 편성해 여전히 상황 인식이 느긋해 보인다. 광주를 포함해서 현재 지방 의료원 설립

여전히 미흡한 공공의료 체계 강화 방안

을 준비 중인 울산·인천은 신축 대상 지역에서 누락됐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확충 계획에 포함된 지역이 대부분 코로나 이전부터 사업 계획을 추진해 왔던 지역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이번이 새로운 지방 의료원 신축 계획은 제시되지 않은 것이다.

신·증축 때 시군구 지역만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 보조율을 10%p 상향하겠다는 대책 역시 웅색해 보인다. 일시적으로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는 소극적인 대책보다는 지방 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항구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인구 10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의료원 설립을 의무화한다거나 지방 의료원 신축 및 운영을 지방정부가 아닌 국가 책임으로 규정하는 식의 보다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공공 병상 확충 방안이 시도돼야 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 기관은 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5.5%, 병상 수 대비 9.6%로 OECD 최하위권이다. 2019년도 OECD 평균 공공 병상 비율이 77%임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공공의료 체계가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다. 민간 의료기관이 압도적 다수인 소위 기술이전 운동장 같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등이 인수합병과 기부채납, 운영 위탁, 매입, 수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 병상의 공공화가 추진돼야 한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공공 병상 비율을 현재 10% 미만에서 3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광주의 예를 들어 보자. 인구 10만 명당 종합병원 병상 수가 381.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공공의료 기관 비율은 2018년도 기준 3.0%(전국 평균 5.7%), 공공 병상 비율은 7.2%(전국 평균 10.0%)로 전국 평균과 7개 특·광역시 평균에 비해 낮다. 광주광역시 추진 중인 300병상 규모의 광주 의료원과 같은 신규 공공 병상의 확충과 함께 기능적으로 특수 목적에 국한돼 있는 기존 공공 병상의 기능 확대, 그리고 민간 병상의 공공 병상 전환과 같은 방안들이 병행돼야 한다.

세 번째로 소위 '지역 완결적인 공공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립대 병원의 역할이 가장 핵심적 요소이다. 이번 대책에도 국립대학교 병원장 선정 시 공공의료 운영 계획 평가, 공공 부문 부원장 직제, 예산 지원 보조를 차등 제도 등의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들이 제시됐으나 이미 탈공공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립대 병원의 공공성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국립대 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거나 공공보건으로 계획에 대한 평가의 현실화, 그리고 의료 수익의 일정 비율을 공공의료 사업에 투입하도록 하는 평가 기준들이 마련돼야 한다.

광주광역시에는 지역 거점 병원의 역할을 수행할 지방 의료원이 없다. 따라서 그동안 지역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국립대 병원에 집중되거나 민간 병원에 위탁돼 파행적으로 운영돼온 사례들이 많았다. 이러한 질곡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광주 의료원이 설립되고, 지역 내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공공의료 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열악한 전문 건설업체 보호·육성하려면

전문보다 무려 1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종합이 대형 공사를 수주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역할이 필요치 않은 단순 복합 공사가 종합 위주로 발주되는 발주 기관의 오랜 도급 관행이 문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 건설업체 또한 최대 선결과제라고 하면 건설공사 물량 및 적정 공사비 확보 문제를 짚을 수 있으며, 나아가 불법·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에 정부는 오랜 동안 건전한 건설 시장을 위한 다양한 하도급 정책 등을 펼쳐왔으며, 그중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사 간 불공정 행위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라는 선진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후 전국 모든 지자체로 전면 확대 실시해 왔다. 지난해 대통령 주재 아래 열린 공정 경제 성과 보고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데, 원도급 업체가 일감을 받아 하도급 업체에게 나눠주는 수직적 구조가 아닌 모든 업체가 수평적인 지위에서 공공기관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가 제시되었다.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는 쉽게 말해 종합과 전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종합 업체가 주계약자가 되고 전문 업체는 부계약자가 되며,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추정 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모든 종합 공사가 적용 대상이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 2013년에 이 제도의 활성화를 전명한 바 있다. 이후 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지

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었으며, 그 결과 도 단위 광역 단계 중에서는 우리 도회가 8년째 부동의 1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다만 도내 발주 현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급격한 발주율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61건을 기점으로 다음해 20건대로 급격히 감소하면서 올해도 간신히 21건으로 체면치레를 하고 있다.

발주율 감소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감독청의 관리 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발주가 지연되고 있고, 둘째는 종합·전문 업체 간 갈등이 동 제도의 단점으로 비하돼 전체적인 발주율 감소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 건설업체 수장으로서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오는 2021년부터는 전문·종합 간 영역 폐지가 가시화될 예정이며, 2022년부터는 전문 건설업체의 대입종화가 적용·시행된다. 또한 그 후속으로 국토교통부의 건설 공사 발주 기준이 당초 훈령에서 고시로 격상되며, 주력 분야 공사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상 유지 보수 공사 개념이 신설되는 등 건설업계는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이런 정부의 건설 산업 혁신 방안의 기본 원칙과 방향은 직접 시공에 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직접 시공의 한 형태인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를 확대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직접 시공의 주체인 전문 건설업체의 활성화를 통해 공사 목적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복합 공사 시공 경험을 쌓아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문 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한다면, 향후 정부의 바람처럼 건설 산업 생산 구조 혁신 방안은 조기에 안착될 수 있을 것이다.

社說

공항 이전 '4자 협의체' 무산시켜선 안 된다

답보 상태에 빠진 광주 군 공항 이전 논의에 새 국면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했던 정부와 시도 간 4자 협의체가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전남도가 '민간 공항과 군 공항 이전을 묶어 추진하자'는 광주시의 제안에 반발해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방부와 국토부 및 광주시와 전남도가 참여하는 '공항 관련 4자 협의체' 관계자들은 지난달 13일 광주공항에서 처음 만나 참여 인원과 논의 방향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이웅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 지사가 시도 생활발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 오래된 중국 요리를 만나는 것 같다. 목포의 중국집에서 흔한 단무지와 양파 말고도 두 가지 김치를 주는 것을 보고는 놀라워했는데, 고흥에서 목은지라니.

멀고 떨어져 가치가 지켜진달까, 세상은 한쪽으로 기울어 것만은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반짝 드는 남도 여행이었다. 그 내년에는 우리를 고평하는 복잡한 당면 문제를, 이틀테면 균형 발전이나 노령화로 소멸 위기를 맞은 지역의 암울한 미래가 있었지만... 씩씩한 마음을 추스르며, 새 봄을 기다린다. 아아, 이 겨울은 참 길어질 것 같다. <음식 칼럼니스트>

민도 광주시가 약속을 깰라며 협의체 불참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도 "광주시가 상상 정신을 포기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시도 행정 통합 관련 연구 용역비 2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어렵사리 구성된 4자 협의체를 와해시키는 것은 시도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간 공항 이전이 무산되면 민간 공항 활성화를 꾀할 수 없고, 군 공항 이전 역시 해결책을 찾을 길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점이 있다면 협의체에서 충분히 개선하고 논의하면 될 일이다.

더욱이 주민 이익을 대변하면서도 한편으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시도가 되레 갈등을 부추기며 세 대결 양상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4자 협의체는 그동안 광주·전남 공항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해 왔던 정부 부처들이 적극 참여한다는 점에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다. 시도는 협의체를 다시 가동해 그 틀 안에서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

벼랑 끝까지 몰린 자영업자 구제 방안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까지 몰린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터 주기 위한 '공정 임대료'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최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공정 임대료'의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 등으로 영업 손실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이들을 위한 방안이다. 앞서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는 문제인 대통령의 지적이 있자 곧바로 입법 조지를 예고한 것이다.

여기에 그동안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권장해 왔지만, '선의'에 맡기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비례대표인 이동주 의원은 지난 14일 '임대료 멈춤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

다. 그 골자는 감염병예방법상 집합 금지업종에 대한 선 임대료 전액을, 영업 제한업종은 임대료의 절반을 깎아 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민간의 가격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제기되었다. 여기에도 밀려가 없지 않지만, 감염병 같은 전대미문의 사태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구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부와 여야는 이해득실을 떠나 경제적 약자를 '공적 보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인 임대인 지원 방안과 임차인 보호 방안에 허점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경제적 약자 보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되 국민 재산권도 존중하는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1941년 12월 25일 미국 NBC라디오에서 한 곡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당시 미국은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된 상황이었다. 부드러운 음색의 가수 빙 크로스비가 부른 이 노래는 가정에서 라디오를 들던 많은 이들을 위로해 주었는데, 이후 영화 '홀리데이 인'(Holiday inn)에 삽입돼 메가 히트를 기록했고, 음반으로도 발매돼 많은 사랑을 받았다. 우리가 해마다 크리스마스 철이 되면 듣게 되는 캐럴 '화이트 크리스마스'(White Christmas)다.

당신의 캐럴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캐럴이다. 마음을 들뜨게 하는 '징글벨'이나 차분한 분위기의 '실버벨' 등이 흐르면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음을 느낀다. 지난 2018년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이후 거리에서 캐럴을 듣는 건 어려워졌지만, 라디오나 유튜브를 통해 캐럴을 들을 때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최근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무료 캐럴 음원을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 마당'에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시향이 새로 편곡하고 녹음한 캐럴 음원은 '고요한 밤' /김미은 문화부장mekim@

무명 가수들이 재녹음한 고 영화 '러브 액츄얼리' 등에도 삽입되는 등 시대를 넘어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이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위로를 필요한 요즘이다. 좋아하는 캐럴을 들으며 올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 캐럴은 워낙 다양한 버전이 있어 누가 부르느냐,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나에게는 발레 '지젤'의 작곡가 아돌프 야당의 '오 홀리 나잇'(O holy night)이 멋진 동반자가 될 것 같다.

기고



고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

건설 공사의 직접적인 계약상대자인 원·하도급사는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선 건설 현장에서는 원도급사의 계약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 및 하도급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설업계가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의 중요성을 정부에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직접 시공의 주체인 전문 건설업체들은 초저가 하도급 등으로 당장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생존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1월 현재, 전남도내에서 전문 및 종합으로 발주된 공공 공사 경쟁입찰 현황을 보면 종합 공사 쪽으로 상당히 치우친 모습이다. 경쟁 입찰로 발주된 총 공사 건수는 2020년으로 이 가운데 전문 발주는 800건이다. 반면 종합 발주는 1220건으로 종합이 전문보다 1.5배 이상 많다.

금액 대비 결과는 더 극명하게 갈린다. 총 집계된 경쟁 입찰 금액은 3조 2848억 원으로 이중 전문은 2167억 원이다. 이에 반해 종합은 3조 681억 원으로 종합이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